

2023년 12월 5일

반도체 / 전기전자 Analyst 김동원
02-6114-2913 jeff.kim@kbfg.com
연구원 유우형
02-6114-2940 Woohyung.yoo@kbfg.com
연구원 이경아
02-6114-2111 kyunga.lee@kbfg.com

반도체

AI, 2024년 강력한 모멘텀



더 많은 리포트 보기

11월 KOSPI 외국인 순매수 80%: 삼성전자, SK하이닉스

— 11월 코스피 (KOSPI) 시장의 외국인 순매수는 3,37조원을 기록해 4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되었다 (12/4, 한국거래소). 특히 삼성전자 (순매수 1위, 2조원), SK하이닉스 (순매수 2위, 6,790억원) 등 두 종목의 순매수 규모는 2.68조원으로 11월 전체 외국인 순매수의 80%를 차지했다. 이는 10월 외국인 순매수 1, 2위가 2차전지 종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의 머니 무브가 2차전지에서 반도체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

반도체 수요 촉매: 2007년 (mobile) → 2017년 (cloud) → 2027E (AI)

— 과거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신규 애플리케이션 출시 후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했다. 2007년 스마트 폰 출시가 모바일 DRAM 수요를 견인했고, 2017년 데이터센터, 클라우드 시장이 형성되며 서버용 메모리 (서버 DRAM, eSSD) 수요를 이끌었다. 한편 2024년부터 AI (인공지능)는 ① 생성형 (Generative) 에서 추론 (Inference)으로 영역이 확장되고, ② AI 서버에서 온 디바이스 (On-device) AI로 진화하며 메모리 반도체 장기 수요를 견인할 전망이다.

Top picks 삼성전자, SK하이닉스: SK하이닉스 시총 2위 굳힌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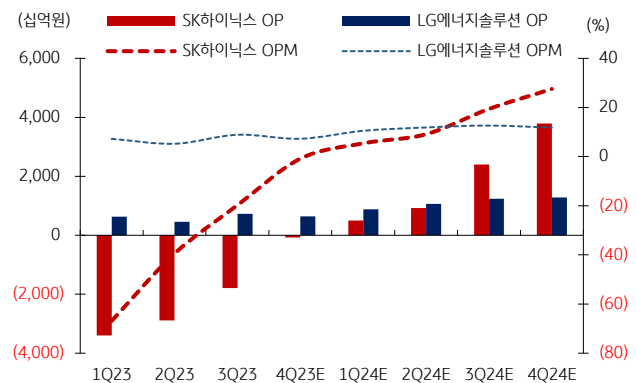
— 2024년 AI 시장 확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기록제로 작용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제시한다. 이는 ① 2027년까지 AI 서버 시장 성장률 (연평균 +36%)이 일반 서버 성장률 (+10%)을 +3배 상회하고, ② 온 디바이스 (On-device) AI 기기의 메모리 반도체 탑재량이 기존 제품 대비 +2배 이상 증가 (AI 스마트 폰: 12~16GB, AI PC: 64GB)하기 때문이다. 특히 2024년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순이익은 28조원, 4조원으로 2023년과 비교할 때 각각 16조원, 13조원의 손익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. 이에 따라 내년 SK하이닉스는 AI의 강력한 수요 모멘텀으로 시가총액 2위를 굳힐 전망이다 <그림 1, 2>.

그림 1. On-device AI 메모리 반도체 탑재량 +2배 증가



자료: KB증권 추정

그림 2. SK하이닉스 vs. LG에너지솔루션 실적 전망



자료: SK하이닉스, LG에너지솔루션, KB증권 추정

투자자 고지 사항

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[삼성전자]을(를)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.

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[SK하이닉스]을(를)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.

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[LG에너지솔루션]을(를)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.

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,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,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